

고흥유자축제, 11월 6일 개막... 역대급 흥행예감

유자밭 예술공연, 유자스파, 가을밤 드론쇼, 콘서트, 맛갈 향토음식 등 오감체험 풍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동리 유자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사랑향기!(Humanity) 유자천국!(Ujatopia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유자밭이라는 천혜의 자연 무대에서 예술과 향기, 체험 등이 어우러지는 감성 힐링 축제로 진행된다.

■유자밭에서 펼쳐지는 황금빛과 예술의 축제 향연

유자밭 입구에는 9m 높이의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낮에는 유자의 향기로, 밤에는 황금빛 조명과 빛의 환희 루미너리, 유자빛 하늘정원이 어우러져 고흥의 가을을 수놓는다.

특히, 가을 코스모스 단지는 유자 탐방로까지 확대 조성돼 방문객의 포토존과 힐링공간으로 한층 더 가을을 느끼

게 해 줄 것이다.

자연 속 공연장인 유자밭 힐링시어터에서는 심형래 주연의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고전극을 비롯해, 코루 심포니 현악 콰르텟의 클래식 공연, 폴란드 행위예술가의 유자 요정 퍼포먼스, 가족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기간 매일 밤 이어지는 관광객 위주의 콘서트와 드론쇼

축제의 밤무대는 4일간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와 1,000대의 드론쇼로 매일 특색있게 채워진다.

개막일인 6일에는 김희재, 마이진, 태진아, 성리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콘서트를 시작으로 화려한 서막을 열고, 둘째 날 7일에는 유자락 추억 콘서트가 열리며 유중완밴드, 윤수일밴드, 왁스, 양혜승 등이 무대를 꾸민다. 셋째 날인 8일에는 유자빛

드림콘서트에서 단던, 하이키, 미란이, 씨아이엑스(CIX) 등이 젊은 청춘의 열기를 더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가을밤 콘서트로 장민호, 최수호, 강혜연, 박주희 등이 감미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 로컬 향토의 맛과 유자 향기 가득한 체험으로 오감 만족

고흥향토음식관에서는 유자 소스를 곁들인 해물 요리, 유자 막걸리, 삼치회, 서대회, 고흥한우 등 고흥의 향토 메뉴를 위생적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로 준비한다. 특히, 고흥한우는 축제 기간 20% 할인 판매되며, 농수특산물 특관전에서는 지역 명품 유자와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유자스파 공간이 전년보다 3배 확대됐으며,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하다. 유자정 담기, 유자 따기, 유자 농가 길놀이, 전국 유자밭 사생대회 등이 진행



제5회 고흥유자축제 2025.11.06.(목) ~ 09.(일)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1-1 고흥유자밭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바다의 맛과 예술의 빛으로 생동 미식과 예술, 노을빛 풍광, 빛나는 야경까지

광양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미식과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생동하고 있다. 광양시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바다의 맛과 예술의 빛, 노을빛 풍광, 빛나는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완성지로 광양수산물유통센터를 추천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키크랩과 각종 활어 등 다채로운 해산물의 미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시간의 울림: 예술로 이어지는 공명'을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양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일환으로 이탈리아 미디어아트그룹 스퀘터스 랩과 비주얼 아티스트 민첸조 마르실리아, 국내 작가 이경훈, 유지원 등이 참여했다.

'시간의 울림'을 주제로 전통과 기술, 동서양의 미학을 융합해 감각적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내달 4일까지 시간과 공간이 공명하는 예술적 여정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집 모양의 설치작품에는 일상의 풍경과 인간의 감정이 디지털 영

상으로 투사되어, 예술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독특한 감동을 전한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활어, 선어, 젓갈,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며, 키크랩, 대게, 바닷가재 등 고급 수산물도 시세를 공개해 정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고른 활어를 현장에서 손질해 포장하거나 2층 상차림 식당에서 바로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층 식당의 1인당 상차림비는 5천 원이고, 다양한 메뉴와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미식과 예술, 그리고 빛나는 야경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한 곳에서 광양의 맛과 멋, 감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며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기 좋은 계절, 광양만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11월 1일 산동면 관산리 산수유꽃축제장 일원에서 「산수유 열매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례산수유열매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진한열)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산수유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산수유차 시음회를 비롯한 ▶산수유 열매따기 ▶산수유 떡메치기 ▶산수유 엑기스 만들기 ▶맨손으로 장어잡기 체험 ▶관광객과 지역민 화합 한마당 ▶가을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구례군 산동면은 전국 최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로 상위, 반곡, 현천 등 마을 곳

“루비빛 알알이 산수유 붉게 물들어”

구례군, 11월 1일 산수유열매 축제 개최

곳에는 1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가을에는 루비빛으로 익은 산수유열매가 장관을 이루며, 11월 초순부터 12월 초까지 빨갛게 익은 열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산동면에서 생산되는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한약재로 쓰이는 건피뿐만 아니라 산수유 진

액, 음료, 환 등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가공·판매되고 있어 축제 기간 중 방문객들은 산수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진한열 축제위원장은 “산수유마을 산동면을 방문하셔서 붉게 익어가는 산수유 군락지를 감상하며 축제도 즐기고, 건강이 좋은 산수유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2025. 11. 1.(토) 산수유꽃축제장 일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회장 천기산)가 오는 11월부터 즉시콜 운행구간을 기존 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광주 소태역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콜 운행 지역을 광주 소태역까지 확대하면서, 기존의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과의 연계는 물론, 광주 버스 및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과의 환승 연계성 또한 강화하여 이

화순군, 11월부터 즉시콜로 소태역까지 간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용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예약콜을 통해 나주시, 순천시(주암공용버스터미널), 보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광주광역시까지 운행하여, 광주·전남

권 전역의 이동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욱 건설교통실장은 “즉시콜의 소태역 확대 운영은 이용자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중환 기자

장성군이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에이(A)형으로, 백신을 접종받으면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성군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세요”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주민도 접종 권고

주소지에 관계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두 백신을 한 번에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1월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 주민도 미리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한다”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평소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곡성군, 고흥사랑기부제 “김백 또쥐핍~~” 이벤트 진행

기부자 중 매달 500명, 1만 원 상당의 지역쌀 증정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곡성군 고흥사랑기부제 “김백 또쥐핍~~”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백 또쥐핍” 이벤트는 곡성군이 지역 농·축협 및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와 협력해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와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곡성군 고흥사랑기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소액 기부자들의 따뜻한 사연과 지역문제에 대한 공감에 보답하고, 앞으로 기부에 참여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달 동안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 매달 500명을 무작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지역 쌀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고

향사랑e을 또는 위기브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곡성군에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된다.

곡성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고흥사랑e을을 통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의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며 기부금을 모집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곡성군의 사업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경품도 받아 가는 알찬 혜택도 같이 드리고자 한다. 곡성군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